

리튬 등 배터리 소재 가격 반등 양극재기업, 실적 개선 ‘청신호’

리튬·니켈 가격 동반 상승세
중저가 전기차 등 수요 증가 전망
“긍정적인 변화 이루어질 것”

배터리 주요 소재인 니켈과 리튬의 가격이 저점을 찍고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양극재 기업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쏠린다.

29일 한국자원정보서비스 KOMIS에 따르면 10월 리튬 평균 가격은 kg당 71 위안으로 집계됐다. 지난 8월 평균 70위안이었던 점과 비교하면 소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니켈 가격은 29일 기준 1만6168달러다. 1년 내 최고치인 2만1270달러 대비 76% 수준으로 내려왔으나 단기 하락세는 벗어난 모양이다. 지난 9월 최저점이었던 1만5701달러와 비교했을 때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리튬과 니켈은 배터리 양극재의 원재료다. 양극재는 리튬, 니켈 등 광물들을 조합해 만든 소재로 전기차의 주행거리와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필

수 소재다. 양극재의 판가는 광물 가격과 연동되는 구조이기에 소재 기업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한다. 원재료 투입 시차 효과인 긍정적 레깅 효과로 인해 광물 매입 시점과 양극재 판매 시점 사이의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가격이 하락한 시점에 확보한 광물로 양극재 기업이 소재를 생산하면 통상 2~3개월 뒤 판매 시 오른 광물 가격에 연동해 대금을 받는 구조다. 최근에는 니켈 가격의 하락으로 부정적 레깅 효과를 얻어 양극재 업체가 어려움을 겪었다.

업계에서는 니켈 가격이 우상향하는 요인으로 중국의 경기 부양책 발표를 꼽고 있다. 원재료와 광물의 큰 수요처인 중국의 경기 회복 가능성이 기대되면서 비철금속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최근 중저가 전기차 수요 증가로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대세론도 나왔으나 니켈 수요는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이 팽배하다. 시장조사전문기관 SN E리서치는 최근 2024 배터리 니켈 매

탈 리포트를 통해 배터리 생산에 사용되는 니켈의 수요가 2024년 53만톤에서 오는 2030년 133만톤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삼원계 배터리에 주로 사용되는 니켈의 사용 비중 또한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소재 업체들도 니켈을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예코프로는 중국 전구체 제조사는 GEM과 인도네시아에서 통합 양극재 사업을 추진한다.

GEM은 인도네시아에서 니켈 15만톤을 생산할 수 있는 제련소를 운영하면서 배터리 소재 밸류체인을 형성하는데 힘쓰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광물 가격이 반등세를 보이긴 하나 아직 업계 수익성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는 시기상조”라며 “다만 내년에는 전기차 수요가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어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현대글로벌비스, 주요 법인 ‘ISO 14001’ 인증 (환경경영시스템)

미주 4곳, 유럽 3곳, 아태 3곳 인증

현대글로벌비스가 해외 주요 법인의 환경경영시스템을 인증받으며 탄소중립 달성에 속도를 낸다.

현대글로벌비스는 미국과 유럽 등 해외 주요 법인 10곳이 국제공인 인증기관인 로이드인증원(LRQA)으로부터 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 통합 인증을 획득했다고 29일 밝혔다. ISO 14001 인증은 환경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사업장과 지역사회의 환경 위험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지 평가하는 국제표준 경영시스템이다.

현대글로벌비스는 이번 통합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미주권역 4개 법인, 유럽권역 3개 법인, 아태권역 3개 법인을 대상으로 환경관리 현황을 조사했으며 ‘환경법규 및 준수평가 관리규정’ 등을 개정했다.

현대글로벌비스는 이번 인증 획득과 함께 지난해 10월 공표한 ‘2045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더욱 노력할 예정이다. 당시 현대글로벌비스는 탄소중립 달



문병섭 현대글로벌비스 안전환경경영실장(왼쪽)과 이일형 로이드인증원 대표가 지난 25일 서울시 중구 로이드인증원에서 열린 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 통합 인증 수여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현대글로벌비스

성을 위한 로드맵 중 하나로 오는 2040년까지 국내외 전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현대글로벌비스 관계자는 “주요 해외 법인이 환경 경영에 대한 국제 표준 인증을 받은 만큼 국내외의 현대글로벌비스 전 구성원이 친환경에 대한 공감대를 강화해 적극적으로 탄소중립을 이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삼성전기, 3분기 好실적... AI·전장 주효

매출 2.6조, 영업이익 2249억
내년 AI 가속기용 FC-BGA 양산

삼성전기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 불투명한 경영 환경 속에서도 AI·전장 등 고부가가치 제품 공급을 확대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삼성전기는 올 3분기 연결기준으로 매출 2조6153억원, 영업이익 2249억원을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586억원(11%), 영업이익은 368억원(20%) 증가했고, 전분기 대비로는 매출 427억원(2%), 영업이익 134억원(6%) 늘었다. 이번 실적 개선의 주요 요인으로 AI와 전장 등 고부가 제품의 공급 증가가 꼽힌다.

삼성전기는 AI·전장·서버 등 시장 성장으로 AI용 MLCC 및 서버용 반도체 패키지기판, 전장용 카메라 모듈 등 고부가 제품 공급이 증가해 전년 동기,



삼성전기 세종 사업장 /삼성전기

전 분기 대비 실적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AI 관련 제품의 경우 삼성전기는 AI 서버용 MLCC의 올해 매출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삼성전기는 AI 서버용 MLCC 매출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다. 서버·AI용 플립칩-볼그리드어레이(FC-BGA) 또한 올해 매출이 중앙처리장치(CPU)용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2배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기는 이날 실적발표 콘퍼런스 콜(전화회의)에서 “내년에도 이들 AI 서버 관련 매출은 올해 매출 성장에 준하는 큰 폭의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며 “매출 목표 달성을 위해 고부가가치 제품을 중심으로 성장 시장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에는 AI 가속기용 FC-BGA 양산을 시작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FC-BGA는 고성능반도체를 위한 기판으로 이 또한 고부가 제품으로 꼽힌다.

삼성전기는 전장 분야에서도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다. 삼성전기는 전장용 FC-BGA 기판과 글로벌 거래선향 전장용 카메라 모듈 공급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기는 내년 이들 제품의 가동률이 올해보다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차현정 기자

에쓰오일, 액침냉각 ‘e-쿨링 솔루션’ 출시

고인화점 액침냉각 신제품 개발

에쓰오일이 고인화점 액침냉각유인 ‘S-OIL e-Cooling Solution(에쓰오일 e-쿨링 솔루션)’을 출시하고, 한국·일본 등 글로벌 시장을 공략한다.

에쓰오일은 인화점 250℃ 이상의 고인화점 신제품을 개발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에쓰오일은 글로벌 톱 티어 서버사가 제조한 서버를 활용하여 고인화점 제품의 실증 테스트를 진행, 서버의 안정적인 구동과 우수한 열 관리 성능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고인화점 제품은 특히 위험물안전 규제가 엄격한 한국, 일본 등 동북아 시장에서의 수요가 기대되고 있다. 대규모 데이터센터에 액침냉각 기술을 도입하려면 위험물안전관리법, 소방법에 따른 규제가 해당되지 않는 제



에쓰오일 직원들이 액침냉각유 성능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에쓰오일

품(인화점 250℃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저인화점 제품의 경우 아람코 자회사(Valvoline Global Operations)를 통하여 복수의 액침냉각 시스템 개발사와 인증을 완료함으로써 해외 시장에서도 자사 제품의 입지를 다져 나갈 방침이다.

/차현정 기자

SK이노, 2년 연속 ESG 평가 ‘A+’ 등급

SK이노베이션이 국내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A+ 등급을 획득하며 상위 0.7% 안에 들었다.

SK이노베이션은 국내 대표 ESG 평가기관인 한국ESG기준원(이하 KCGS)이 시행하는 2024년 ESG 종합평가에서 ‘A+’ 등급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평가대상인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 794개사 중 A+등급을 획득한 기업은 20개사로, 이 중에서 2년 연속 A+등급을 받은 기업은 SK이노베이션을 포함한 6개사다. 이는 전체 평가 대상의 상위 0.7% 수준이다. 아울러 SK이노베이션 계열사 중 하나인 SK아이이 테크놀로지도 2년 연속 A 등급을 유지했다.

SK이노베이션은 국내 및 글로벌 ESG 공시 의무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ESG 실행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한 점이 2년 연속 A+ 등급 유지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올해 SK이노베이션은 사회(Social)와 지배구조(Governance) 영역에서 지난해 이어 A+ 등급을 유지했으며, 환경(Environmental) 영역에서도 A 등급을 유지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내 및 글로벌 ESG 공시 의무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생물다양성 등 보다 체계적인 ESG 경영의 이행 실적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고려아연, 자사주 처분 나서나... 영풍 “배임소지 있어”

우호지분 확보로 의결권 격차 완화 분석

고려아연이 임시 이사회를 열고 자사주 일부를 우리사주조합에 넘기는 방안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영풍 측과의 주주총회 표 대결을 앞두고,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를 우호 지분으로 확보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영풍 측은 이에 크게 반발하며 “우리사주조합에 자사주를 넘기는 것은 업무상 배임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윤범 회장 측과 영풍 측은 물리칠 수 없는

주총 표 대결로 맞붙게 된 것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 이사회는 금일 오전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안건은 제시하지 않았는데, 이사들에게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일” 정도로 설명했다는 후문이다.

업계에선 최윤범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회가 지난 5월 초부터 7월 중순까지 한국투자증권을 통해 사들인 자사주 28만9703주(지분율 1.4%)를 우리사주조합에 처분하는 내용을 의결할 것

으로 본다.

고려아연은 앞서 지난 5월 한국투자증권과 1500억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기간은 다음 달 8일까지였는데 한국투자증권은 이미 지난 7월 1495억원 이상을 투입해 자사주 매입을 끝냈다.

고려아연 이사회가 한국투자증권을 통해 사들인 이 자사주 1.4%를 우리사주조합에 넘기면 영풍 측과의 의결권 격차를 더욱 줄일 수 있다.

/양성운 기자